

20_1_한국어_車石

구루마이시 돌

에도 시대[1603-1867]의 가도는 흙길이였기 때문에,
비가 오면 지면이 질퍽거려서
우차의 바퀴가 빠져서, 앞으로 나갈 수 없는
가능성이 있었습니다.

그것을 막기 위해 깐 것이, 이 구루마이시
돌입니다.

물자의 운송에는, 오쓰에서 야마시나를 지나 교토로
향하는 도카이도를 이용했습니다. 그 사이에는
오사카 산(현재지) · 히노오카 고개라는 난소가
있어서,
그런 장소에 구루마이시 돌을 깔았습니다.